



은행권 부실, 유로존 최대 리스크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유로존 내 위기감은 2012년 중반 이후 다소 완화되었으나, 상업 은행권 부실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음.
 - ECB는 유로존 내 위기감이 ECB의 정책과 일부 국가의 경쟁력 개선, 정치권의 노력 등으로 완화되었다고 평가
 -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방침과 유로존 정상들이 ECB에 역내 단일 은행 감독권을 부여한 것이 주효하였음.
 - 거시·금융시장 환경 악화로 촉발된 은행의 신용위험 노출 증가, 수익성 악화, 적정자본 수준 하락은 거시·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상존함.

- 2012년 12월 발표된 ECB의 Financial Stability Report는 유럽 재정위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분석
 -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였고,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은행권은 다시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됨.
 -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노동비용 감소로 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이 증가함.

- 유로존 보험권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, 은행권은 수익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대형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과 투자수익성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.
 - 2012년 1/4~3/4분기 투자수익률(중간값)은 2~2.5% 수준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, ROE(중간값) 역시 같은 기간 중 10% 수준이 유지됨.
 - 대형 은행들의 주가는 부실 위험 상승으로 자산 가치에 미달하였으며 수익성도 하락함.
 - 유로존 대형 은행들의 주당순이익(중간값)은 2012년 들어서면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2년 4/4분기에는 0.5%이하로 낮아졌고 2013년에도 0.5%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.

- 유로존 대형 은행들의 ROE(중간값)은 2012년 1/4분기 5% 수준에서 2012년 4/4분기에는 5% 미만으로 하락함.

(New York Times, ECB, 12/14)